

술어의 통사의미 자질과 대격¹⁾

이 종근
(목포대학교)

Lee, Jong Kun. 2000.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Predicate and Accusative Case.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183-202.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new account for what kind of predicate can license accusative case in Korean. Previous approaches to this issue claim that predicates can license accusative case to their complement when they have some specific semantic feature such as [-stative] or when they involve a certain pair of related semantic notions (determinant and determinee). These previous approaches, however, pose serious empirical problems since there is a set of state predicates which can license accusative case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se required semantic features. In this paper, a new analysis will be given for this problem, based not on a single semantic feature, but on a syntactic feature and lexical case licensing. In addition, to account for which argument of an accusative-case licensing predicate gets to bear accusative case, the present study will introduce a new way of argument selection in Korean, which is based on a set of lexical rules. (Mokpo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한국어의 격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연구 성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술어의 경우 아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술어가 나타나는 문장의 주어는 주격(nominative case), 목적어는 대격(accusative case)을 면허 받는다.

- (1) a. 철수가 웃는다.
b. 영화가 책을 읽는다.

1. 이 논문은 2000년 11월 4일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발표장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논평자께 감사드리고 본 논문의 논지를 다듬는 데 크게 도움이 된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도 감사드린다.

본고는 연구의 범위를 좁혀 대격 표지 중 논항과 함께 나타나는 대격 표지 '을/를'에 초점을 두고 대격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예문 (2)에서처럼 논항이 아닌 부사적 명사구와 함께 나타나는 '을/를'의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2) a. 철수가 서울에 삼 년을 살았다.

b. 영화가 두 번을 방문했다.

한국어 격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모아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항술어(two-place predicate)의 의미 자질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술어들이 그 보충어(complement)인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항술어라고 해서 모두 그 보충어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a. 철수는 영화가/*를 좋다.

b. 영화는 책이/*을 많다.

위 예문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술어를 두 종류로 나누어 좀 더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술어

좋다, 싫다, 밉다, 그럽다, 무섭다, 두렵다, 예쁘다

(5) 소유를 나타내는 술어

많다, 있다, 적다, 부족하다, 없다, 가득하다, 충분하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대격이 술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술어의 어떤 의미 자질이 보충어인 명사구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이 있어왔다. 지금까지 제안된 의미 자질 또는 개념으로는 Kang(1986)의 상태성(stativity), Kim(1990)의 행위성(agentivity), Hong(1991)의 결정자(determinant)-피결정자(determinee)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술어 의미 중심의 대격 면허 논의를 검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어 내재논항의 대격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대격 면허 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와 그 문제점

2.1 상태성(stativity)

Kang(1986)은 위 (3)의 예문에 나오는 대격을 부여하지 못하는 술어들은 진행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들 술어의 의미적 특성을 [+stative]로 보았다. 이 경우 Kang(1986)은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우선 ‘-고 있’이 한국어 진행형 형태소라는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stative]인 술어만이 ‘-고 있’을 허용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Kang(1986)은 [+stative]의 의미 자질을 가진 술어는 대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stative]인 술어가 자매인 명사구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ang(1986: 7)이 제안한 격표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6) a. 대격은 [-stative] 동사의 자매인 명사구에 부여된다.
 b. 주격은 모든 격표지되지 않은 명사구에 부여된다.

이러한 주장은 그 뒤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Kim(1990)은 다음 예문 (7)에서 주제역을 받는 명사구가 동사와 자매관계에 있다고 본다.

- (7) a. 유미가/에게 돈이 생겼다.
 b. 토마토가/에 벌레가 많이 썩는다.
 c. 부자집이/에 도둑이 잘 든다.
 d. 이 형겅이/에 물이 안 스며든다. (Kang (1986:153)에서 인용)

Kim(1990)은 이 동사들이 [-stative]의 의미 자질을 가진 동사들이임에도 불구하고 대격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Kang(1986)의 격표지 원칙이 잘 못 되었다고 주장했다.²⁾

2. Kang(1986)은 예문에 나오는 이런 동사류는 주격을 면허받는 명사구가 동사와 자매관계에 있지 않아서 대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ang(1986)의 이러한 주장도 해결할 수 없는 심리동사와 관련한 예문이 있으며, 이를 다음 소절에서 제시하겠다.

2.2 행위성(agentivity)

술어의 의미 자질로 대격 면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로서, Kim(1990)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위성(agentivity) 개념을 도입한다. [+agentive] 술어라는 것은 Jackendoff(1972, 1983)의 어휘개념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로 술어를 표현할 때 술어가 DO나 CAUSE 절을 가장 상위에 가지고 있으면 그 술어는 [+agentive]이고, 만약 어떤 술어가 어휘개념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의 가장 상위에 DO나 CAUSE 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술어는 [-agentive]라는 것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한 술어가 그리는 상황에 관여하는 의미적 참가자(semantic participant)들 중에서 가장 상위의 의미적 참가자가 doer나 causer인 술어만이 자매인 명사구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몇 개 동사의 어휘개념구조를 살펴보자.

- (8) a. LCS of *put*: [CAUSE (x, [GO (y, [TO (z)]))])]
 b. LCS of *be*: [BE (x, [AT (y)])]

위에 주어진 어휘개념구조에서 *put*는 가장 상위절에 CAUSE 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LCS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술어 '놓다'는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agentive] 술어이고, *be*는 상위절에 CAUSE나 DO 절이 없으므로 같은 LCS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술어 '있다'는 대격을 부여할 수 없는 [-agentive] 술어가 되는 것이다.

Kim(1990)은 [+agentive] 술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테스트를 제시한다.

- (9) a.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일 수 있는가?
 b. 주절의 술어가 '강요하다, 설득하다'류의 술어일 때 종속절의 술어로 쓰일 수 있는가?
 c. 주절의 술어가 '노력하다, 애쓰다'류의 술어일 때 종속절의 술어로 쓰일 수 있는가?

술어의 [agentivity]에 근거하여 Kim(1990)은 다음과 같은 격표지 원칙을 제안한다.

- (10) a. [+agentive]인 술어는 자기의 자매인 명사구에 대격을 부여한다.
 b. 주격은 모든 격표지 되지 않은 명사구에 부여된다.

하지만 [+agentive] 동사만이 자매인 명사구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Kim(1990)의 주장은 한국어의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a. 철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
 b. 이산가족들은 남북통일을 간절히 바란다.
 c.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

위 예문에 나오는 '모르다, 바라다, 원하다' 등의 동사들은 전형적인 [-agentive] 동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인 명사구에 대격이 면허된다. 우리는 위 예문에 나오는 동사들이 전형적인 [+stative] 동사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agentive] 자질을 기초로 하는 Kim(1990)의 격표지 원칙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stative] 자질을 기초로 하는 Kang(1986)의 격표지 원칙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ang(1986)은 앞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 가지 가정, 즉 '-고 있'이 한국어 진행형 형태소라는 가정과 [-stative]인 술어만이 '-고 있'을 허용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그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의미론(temporal semantics)에서 논의되는 상태동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의 가정은 둘 다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Herweg(1991)는 상태술어의 특성으로 동질성(homogeneity)을 들고 이 동질성은 배분성(distributivity)과 누적성(cumulativity)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Herweg은 동질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2) [Hom (S)]

For all state predicates S:

a. (distributivity):

$$\forall t_1 t_2 (S(t_1) \wedge t_2 \subseteq t_1 \rightarrow S(t_2))$$

b. (cumulativity):

$$\forall t_1 t_2 (S(t_1) \wedge S(t_2) \rightarrow S(t_1 \oplus t_2)), \text{ in case } t_1 \oplus t_2 \text{ exists}$$

배분성(distributivity)은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상태는 그 기간의 일부 기간에도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성질이고, 누적성(cumulativity)은 인접하여 계속 이어지는 두 기간에서 각각 성립되는 상태가 그 두 기간을 합친(sum) 기간에도 성립되면 누적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어 술어 '모르다' 등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이 술어는 명백히 상태술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다' 등의 술어는 '-고 있'을 허용하고 그 보충어에 대격을 면허한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한국어에서 '-고 있'은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의 범위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담당하는 형태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있'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어 진행형 형태소 *be -ing*가 전달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hn (1991)이 주장한 바 있듯이 '-고 있'은 진행상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넓은 의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Ahn(1991)은 '-고 있'은 진행상 표지(marker)가 아니고 'general imperfective marker'라는 점과 한국어의 진행상 표지는 '-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Kang(1986)의 두 가지 가정, 즉 '-고 있'이 한국어 진행형 형태소라는 가정과 [-stative]인 술어만이 '-고 있'을 허용한다는 가정은 그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stative]인 술어만이 대격을 면허할 수 있다는 Kang(1986)의 주장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언어에서도 '모르다' 등과 같은 심리동사들은 대격을 면허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위 (11)의 예문에서 보는 심리동사의 대격 면허 능력이 한국어에만 국한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리동사와 관련한 다음 영어, 중국어, 불어 예문을 보자.

- (13) a. John does not know him.
 b. We want him.
- (14) a. 我願意自由.
 '나는 자유를 원한다.'
 b. 我不知道那個問題.³⁾

3. 중국어의 경우 목적어에 형태론적 격(morphological case)은 나타나지 않지만 논항들이 추상적인 격(abstract Case)은 필요하다고 볼 때 중국어 목적어의 경우 추상적인 격을 면허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문의 심리동사 목적어가 어휘격과 기능상 같은 다른 어떤 표지 없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나는 그 문제를 모른다.’

(15) a. Je ne le connais pas.

‘I don’t know him.’

b. Nous le voulons.

‘We want him.’

위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여러 언어들이 한국어와 같은 종류의 심리동사의 경우에 [-stative]나 [+agentive]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대격을 면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결정자-피결정자

다음은 Hong(1991, 1994)이 새로이 제안한 결정자(determinant)-피결정자(determinee)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Hong(1991, 1994)이 제안한 결정자(determinant)란 개념은 “동사에 의해 그려지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결정짓는 요인(one who determines whether the event denoted by a predicate is brought about or not)”을 말한다. Hong(1991)은 동사를 결정자를 가지는 동사와 가지지 않는 동사로 구분한다.

Hong(1991)은 동사가 결정자(determinant)를 선택하는 동사인지를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앞서 Kim(1990)이 행위([+agentive])동사를 고르기 위해 도입했던 기준 (16a-c)에 (16d-f)를 추가시켜 다음과 같은 테스트 방법을 제시한다.

- (16) a.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일 수 있는가?
 b. 주절의 술어가 ‘강요하다, 설득하다’류의 술어일 때 종속절의 술어로 쓰일 수 있는가?
 c. 주절의 술어가 ‘노력하다, 애쓰다’류의 술어일 때 종속절의 술어로 쓰일 수 있는가?
 d. ‘일부러, 의도적으로’류의 부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가?
 e. ‘-려고’류의 부사절과 같이 쓰일 수 있는가?
 f. ‘저절로’류의 부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가?

Hong(1991)은 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정자의 개념과 함께 피결정자

(determinee)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Hong(1991: 111)은 피결정자를 “one who delimits the event, i.e., an affected entity of the event.”로 정의한다. 이는 “한 동사가 그리는 상황을 상적으로 제한짓는 영향받는(affected) 요소 중에서 그 자신이 결정자인 것을 제외시킨 것”(Hong 1994: 297)이다. 여기서 ‘영향받는(affected) 요소’란 전통적으로 동사가 그리는 상황에서 변화를 겪는 요소라고 정의되어 왔다.

영향받는 요소, 즉 피결정자를 선택하는 동사를 가려내는 테스트는 아래 (17)과 같다.

- (17) a. ‘(한 시간만)에’와 같은 부사구와 같이 쓰일 수 있는가?
- b. ‘V-는데 (한 시간) 걸리다’처럼 쓰일 수 있는가?
- c. ‘완전히’류의 부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가?

Hong(1994)은 결정자-피결정자라고 하는 두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격표지 원칙을 제안한다.

- (18) a. 결정자 논항이 있을 때 피결정자에게 대격이 부여된다.
- b. 주격은 모든 격표지되지 않은 명사구에 부여된다.

그러나 Hong(1991)이 제안한 결정자-피결정자의 개념으로도 위 예문 (11)에 나오는 대격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전형적인 상태동사 ‘모르다’를 가지고 결정자 테스트와 피결정자 테스트를 적용해보면 모두 비문으로 나타난다. 먼저 피결정자 테스트를 적용해 보자.

- (19) a. *철수가 한 시간만에 이 사실을 몰랐다.
- b. *철수가 이 사실을 모르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 c. *철수가 이 사실을 완전히 몰랐다. (여기서 ‘완전히’는 ‘at all’의 의미가 아니고 ‘completely’의 의미일 때임)

‘모르다, 바라다, 원하다’ 등의 심리동사에 결정자 테스트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동사들이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비문으로 나타난다.

- (20) a. *이 사실을 모르자.
 b. *철수가 영희에게 이 사실을 모르라고 설득했다.
 c. *철수가 이 사실을 모르려고 노력했다.
 d. *철수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몰랐다.
 e. *철수가 이 사실을 모르려고 빨리 자리를 피했다.
 f. *철수는 이 사실을 저절로 몰랐다.

이러한 비문들은 결정자-피결정자의 개념으로도 한국어 동사의 대격 면허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술어의 특정한 의미 자질 유무를 기초로 대격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었지만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동사의 의미 자질 한 가지 또는 한 쌍의 의미개념으로 대격 면허를 설명하려고 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술어의 통사자질과 특정한 의미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어휘격(*lexical case*)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⁴⁾ 여기서 통사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를 두 문법범주로 나누는 데 사용되는 통사자질, 즉 [+V, -N] 등을 말한다. 형용사는 [-N]의 통사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격을 면허할 수 없다는 것은 Chomsky(1981) 이후 받아들여지는 기본 가정이다.

3. 어휘격과 술어의 통사의미 자질

3.1 어휘격(*lexical case*)

많은 연구자들(e.g. Freidin & Babby (1984), Baker (1988))은 여격(*dative*)이나 처소격(*locative*)과 같은 어휘격은 해당 술어의 어휘적 특성으로 어휘부에서 미리 결정되어 명시된다고 가정한다. Baker(1988)는 어휘격과 의미역이 one-to-one으로 대응할 때 이를 '의미격(*semantic case*)'이라 부르고 어휘격이 몇 가지 의미역과 one-to-many로 대응할 때 이를 '내재

4. 본 논문에서 '술어(*predicate*)'라는 용어는 Lakoff 등이 'predicator'라고 부르기도 한 것으로 영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한국어 전통문법에서도 동사와 형용사는 서로 다른 문법범주로 구분되는데 '술어'는 이를 모두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격(inherent case)'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술어의 논항에 붙는 여격 '-에게/께/한테'와 처소격 '-에'는 Baker(1988)가 말하는 'inherent case'로 몇 가지 의미역과 one-to-many 관계에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⁵⁾ 예를 들면 여격 '-에게/께/한테'는 goal, benefactor, location 등의 의미역과 대응된다. 처소격(처격) '-에'는 무엇보다 location, goal 등의 의미역과 대응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1)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goal)
- b. 아빠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었다. (benefactor)
- c. 김 사장에게 돈이 많다. (location)
- (22) a. 철수가 책상 위에 책을 놓았다. (location)
- b. 토마토에 벌레가 잘 낀다. (location)
- c. 영희가 서울에 갔다.⁶⁾ (goal)
- d. 서울에 사람이 많다. (location)

한국어 여격과 처소격은 위 예문에서 의미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의미역을 가질 수 없는 명사구는 여격이나 처소격으로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⁷⁾

다음 절에서는 대격 면허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법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5. '-에게'와 '-에'가 격표지(case marker)가 아니고 후치사(postposition)라는 주장(e.g. Urushibara (1991), O'grady(1991))도 있으나 본고의 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6. 한 논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가다' 동사를 비롯한 몇몇 동사의 경우 소위 '에/을' 격교체(case alternation) 현상을 보인다.

- a. 영희가 서울에 갔다.
- b. 영희가 서울을 갔다.

이 경우에는 Smith(1992)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휘격을 받는 두 번째 논항이 어휘적인 처소격을 수의적으로(optionally)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위 문장 (a)에서는 '서울'이 어휘격을 받고, (b)에서는 '서울'이 어휘격을 받지 않고 대격을 면허 받는다고 할 수 있다.

7. Kim(1990)은 어휘적인 여격과 처소격은 어휘격을 받는 요소가 유생물인가 무생물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3.2 한국어의 문법범주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법(e.g. 최현배(1971))의 문법범주 분류 방법을 따라 동사와 형용사를 각각 다른 문법범주로 가정한다. 이는 Kang(1986), Kim(1990) 등의 연구자들이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문법범주(통사범주)로 분류하여 'predicate'나 'verb'로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시제형태소 '-었/았', 문장종결어미 '-다', 주체존대형태소 '-시' 등이 어간(stem)에 붙을 수 있어 서로 유사성이 많기는 하지만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고 있'이나 '-는다' 등 상(aspect)을 표시하는 형태소가 동사에는 허용되나 형용사에는 허용되지 않아서 서로 다른 문법범주로 나눌 타당한 근거가 있다.

- (23) a. 철수가 행복하다/*행복한다. (형용사)
 b. 영희가 책을 산다. (동사)
 c. 영희는 책이 많다/*많고 있다. (형용사)
 d. 철수가 책을 읽고 있다. (동사)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구분되기는 하지만 동사와 약간의 유사성(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영어의 형용사와는 차이점이 있다. Aoun(1981), van Riemsdijk(1983), Miyagawa(1987) 등은 일부 언어에서 형용사는 동사와 구분되지만 동사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런 언어들의 형용사는 [+V, +N]이 아니라 [+V]의 통사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한국어에도 해당된다.

이를 기초로 본고의 주장은 술어가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 경우는 술어의 특정한 하나의 의미 자질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술어의 한 논항이 특정한 의미역을 지니고 있어 여격이나 처소격 등의 어휘격과 연관짓는 경우가 아니면, 이항술어인 '동사'의 경우 대격을 면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어휘격을 받지 않는 논항이 하나일 때는 주격이 나타나고, 어휘격을 받지 않는 논항이 둘일 경우에 동사가 대격 면허 능력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Chomsky(1981)의 주장을 받아들여 격면허자가 동사[+V, -N]처럼 [-N]의 통사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대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형용사는 동사와는 달리 [-N]의 통사 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격을 면허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4)와 (5)에서 예시된 '좋다, 싫다, 많다, 적다' 등의 술

어들은 이항술어이기는 하지만 형용사이기 때문에 대격을 면허할 수 없다.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항술어인 동사의 경우 술어가 아무리 [+stative]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더라도 (내재논항이 한국어에서 여격, 처소격 등의 어휘격과 연관(association) 맺을 수 있는 의미역을 갖지 않는 경우) 그 내재논항은 대격을 면허 받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항술어라고 하더라도 두 논항 중 어느 하나의 논항이 어휘격을 받으면 그 술어는 자매관계에 있는 논항에 대격을 면허할 수 없다. 삼항술어(three-place predicate)의 경우에는 어휘격을 받는 논항이 하나 있고 술어와 자매관계인 내재논항은 대격을 면허받는다. 삼항술어의 경우에도 어휘격을 받는 논항은 위 (21a,b)와 (22a)의 예문에서처럼 특정한 의미역과 연관되어 있다.

3.3 논항 선택과 대격 면허

그러면 이항술어나 삼항술어에서 논항들 중 어떤 논항이 주격을 면허 받고 어떤 논항이 대격을 면허받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 문제가 Hong(1991)의 연구목적 중 중요한 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논항 선택(argument selection)’ 또는 ‘주어 선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논항 선택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항술어의 경우 하나의 논항만이 대격을 면허 받을 수 있는데 논항들 중 어떤 논항이 대격을 면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항 선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⁹⁾

Hong(1991)은 이 문제 역시 술어의 대격 면허 능력을 결정짓는 결정자-

8. 한국어의 격을 영어의 격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려면 한국어도 배열어(형상언어, configurational language)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이런 전제하에 내재논항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의 주과제는 술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술어가 대격 면허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술어의 논항들 중 어떤 논항이 대격을 면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배열형과 관계 없이 어휘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배열어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사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명사구에 주격과 대격 등이 면허(할당, 부여, 점검, 또는 격자질 제거)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지 않다. 통사부에서 격이 어떻게 면허되는가 하는 문제는 문법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이항술어의 경우 논항선택이 잘못되어 대격 면허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Hong(1991)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격 면허 능력과 논항들 중 어떤 논항이 대격을 면허 받는가 하는 문제는 대격 면허라는 차원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

피결정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Hong(1991, 1994)은 “결정자 논항이 있을 때 피결정자에게 대격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이미 ‘모르다, 원하다, 바라다’류의 심리동사의 경우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본고는 한국어 논항선택을 영어의 논항선택과 다르게 다루고 있는 Hong(1991)의 주장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 자질과 개념을 다원적으로 적용하여 논항 선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Dowty(1991), Wechsler(1991), Lee(1996) 등의 접근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Dowty(1991)는 다음과 같은 논항 선택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24) Argument Selection Principle (Dowty 1991:576)

In predicates with grammatical subject and object, the argument for which the predicate entails the greatest number of Proto-Agent properties will be lexicalized as the subject of the predicate; the argument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Proto-Patient entailments will be lexicalized as the direct object.

위 Dowty의 논항 선택 원리에서 언급된 Proto-Agent 자질과 Proto-Patient 자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5) Co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Agent Proto-Role

- a. volitional involvement in the event or state
- b. sentience (and/or perception)
- c. causing an event or change of state in another participant
- d. movement (relative to the position of another participant)
- (e. exists independently of the event named by the verb)

(26) Contributing properties of the Patient Proto-Role

- a. undergoes change of state
- b. incremental theme
- c. causally affected by another participant
- d. stationary relative to movement of another participant
- (e.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event, or not at all)

위 논항 선택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의미 자질이나 개념이

단독으로 논항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Agent Proto-Role 자질들을 함의하는 술어 논항이 주어로 어휘화 되고 '가장 많은 수'의 Patient Proto-Role 자질들을 함의하는 술어 논항이 그 술어의 목적어로 어휘화 된다고 하는 것이다.

Dowty (1991)와는 다른 방법으로 논항 선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Wechsler(1991)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3개의 각기 다른 의미 개념을 사용하여 세 가지 어휘부 규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먼저 정신적 상태 동사(mental state verbs), 인식 동사(perception verbs), 의지적 행동 동사(volitional action verbs)는 그의 Notion Rule로 설명한다. 이 규칙은 목적어 논항과 주어 논항 사이에 전자가 후자를 필연적으로 CONCEIVE하는 관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념'(notion)을 갖고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어휘항목을 금지하는 어휘부 규칙이다. Wechsler(1991)는 이런 논항 선택 규칙은 어휘부에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⁰⁾ 다음 예문을 보자.

- (27) a. John wants the cat.
- John has a notion of the cat.
- ↔ The cat has a notion of John.

위 문장에서 John은 그가 원하는 고양이에 대한 개념이 꼭 있어야 하지만 고양이가 주어인 John에 대한 개념이 꼭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Wechsler는 그의 Notion Rule을 다음과 같이 형식화한다.

- (28) The Notion Rule
- *RELN R
- ROLES <... r ... r' ...>, where
- [s | s ⊢ <<R, r': x, r:y, t>>] ⇒
- (x,y) [s | s ⊢ <<CONCEIVE, x, y, t>>]

10. Chomsky(1981, 1995)의 문법 모형과 Dowty(1991), Wechsler(1991)의 문법 모형은 서로 융합하기 어려운 문법 이론을 내포하고 있으나 어휘부에서 술어가 논항 선택과 대격 면허 능력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 어휘화(lexicalization)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문법 모형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Kang(1986)과 Kim(1990)은 지배결속(GB)문법 이론의 틀(framework)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Hong(1991)은 동일한 문제를 GB가 아닌 다른 문법 이론의 틀(framework) 안에서 다루고 있다.

Wechsler(1991)의 두 번째 규칙은 causal event를 묘사하는 동사를 설명하는 규칙인데 그는 이 규칙을 Nuclear Role Rule이라고 부른다. 이 규칙은 주어 논항이 영향받는(affected) 요소(Wechsler의 용어로는 [+nuclear]인 요소)이고 목적어 논항이 'causer'([-nuclear])인 어휘항목을 금지하는 어휘부 규칙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9) The acid dissolved the metal.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the metal'이 사건에 의해 영향받는(affected) 요소이어야지 주어가 영향받는 요소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Wechsler의 형식화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30) The Nuclear Role Rule

*RELN R
 ROLES < ... r ... r' ... >, where
 r is [+nuclear] and r' is [-nuclear]

Wechsler(1991)의 세 번째 규칙은 그가 Part Rule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소위 'container verbs'라고 불리는 상태동사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어 논항이 목적어 논항의 부분(part)인 어휘항목을 금지하는 어휘부 규칙이다. 이 규칙에 도입되는 '부분'(part)의 개념은 의미론과 통사론에서 part-whole의 개념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31) a. This toothpaste contains sugar.
 b. This book includes an appendix.

위 예문에서 목적어 논항 '설탕'은 주어 논항 '치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part)이 되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다.

Wechsler의 형식화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32) The Part Rule

*RELN R

ROLES <... r ... r' ...>, where

[s | s ⊢ <<R, r': y, r:x, t>>] ⇒

(x,y) [s | s ⊢ <<PART, x, y, t>>]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Wechsler의 논항 선택 규칙들과 Dowty(1991)의 논항 선택 원리는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술어의 논항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원하다, 녹이다, 포함하다' 등의 한국어 동사들도 영어와 같은 방법으로 논항 선택이 된다는 것을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3) a. 존이 고양이를 원한다.
- b. 산이 그 금속을 녹였다.
- c. 이 치약은 설당을 포함하고 있다.

'모르다'류의 심리동사들의 논항 선택과 관련하여, Wechsler(1991)의 논항 선택 규칙으로는 그의 Notion Rule로 이런 동사들을 설명할 수 있다. Dowty(1991)의 이론으로는 '모르다'류의 심리동사들의 내재논항이 Patient Proto-Role의 특성중의 하나인 'sentience (and/or) perception'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논항 선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Wechsler(1991)의 논항 선택 규칙도 하나의 의미자질이 아니라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의미개념을 도입하여 논항 선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Wechsler(1991)의 주장과 Dowty(1991)의 주장이 서로 다르긴 해도 논항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의미자질이 아닌 여러 가지 의미자질 또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결정자와 피결정자의 개념으로 모든 술어의 논항 선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Hong(1991)의 방법과는 크게 대조된다.

논항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이론이 다 타당한 방법이지만 본고의 주과제가 과연 어떤 종류의 술어가 그 내재논항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함께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 술어의 논항들 중 과연 어떤 논항이 대격을 면허 받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는 두 이론 중에서 본고의 목적에 더 부합하면서도 더 간단한 Wechsler의 논항 선택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Wechsler(1991)의 논항 선택 규칙에 도입된 의미 개념, 즉 perceive(notion), causer/affected, 그리고 part/whole의 개념들을 이용하면 술어의 논항들 중 어떤 논항이 대격을 면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한 논항 arg-1이 다른 논항 arg-2를 perceive하는 관계이지만 논항 arg-2가 논항 arg-1을 꼭 perceive하는 관계가 아닐 때 perceive되는 논항 arg-2가 대격을 면허 받는다. 'want'와 같은 심리 동사가 그 예로 이미 제시되었고 한국어 동사 '원하다' 등에도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causer-affected 관계인 경우는 Grimshaw(1990)와 Hong(1991)에서도 이미 논의가 된 것인데 causer인 논항이 주어가 되고 영향받는(affected) 요소가 (목적어로 선택되면서) 대격을 면허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격을 받지 않는 술어의 두 논항이 부분-전체(part-whole)관계에 있으면 부분(part)인 논항이 대격을 면허 받는 것으로 어휘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이항술어와 삼항술어의 의미 자질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술어들이 그 보충어(complement)인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대격이 술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술어의 어떤 의미 자질이 보충어인 명사구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검토했다. 지금까지 제안된 의미 자질 또는 개념으로는 Kang (1986)의 상태성, Kim(1990)의 행위성(agentivity), Hong(1991)의 결정자(determinant)-피결정자(determinee) 등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stative]나 [+agentive]와 같은 하나의 술어 의미 자질 중심의 대격 면허 방법이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상태술어가 있다는 점을

11.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술어를 검토하면 논항 선택에 대한 설명을 위해 추가적인 의미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논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나의 의미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술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의미자질이나 한 쌍의 서로 관련된 의미개념으로 모든 술어의 논항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최적의 해결이 될 것이다.

지적하고 한국어 내재논항의 대격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국어 술어의 대격 면허 능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술어가 대격을 면허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사자질로 [+V, -N]의 자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Chomsky(1981)의 주장을 따르면서, [+V, -N]의 자질을 가진 술어는 특정한 의미역을 가지고 있어 어휘격을 받는 명사구를 제외하고는 내재논항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논항 선택 문제는 결정자(determinant)-피결정자(determinee)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Hong(1991)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어에 있어서도 Wechsler(1991)의 이론을 따라 그가 영어의 논항 선택에 대해 제안한 것처럼 몇 가지 의미 개념을 다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참고문헌

- 강명운 역. 1998. 촘스키 언어학 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이광호. 1994. "국어 비대격 '을-NP'에 대한 해석", 언어 19-1, 한국언어학회.
- 조성식 편. 1990. 언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홍기선. 1994. "한국어 대격의 의미", 언어 19-1, 한국언어학회.
- 홍재성 외 9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 Ahn, Y. 1991. "The Imperfective Viewpoint of *ko iss* in Korean," Ph.D. qualifying paper,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Aoun, Y. 1981. "Parts of speech: a case for redistribution," in A. Belletti et al, eds.,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Scuola Normale Superiore, Pisa, 3-24.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 Freidin, R. and L. Babby. 1984. "On the Interaction of Lexical and Structure Properties: Case Structure in Russian," in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6.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Hale, K. 1983. "Warlpiri and Grammar of Non-configurational Language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 5-47.
- Hong, K.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opper, P. and S.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99.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 Jackendoff, R. 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IT Press.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IT Press.
- Kang, Y. 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im, Y.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ee, J. 1994. *The Syntax and Pragmatics of Korean Ca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ee, J. 1996. "One-place Predicates and Argument Selec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1.
- Miyagawa, S. 1987. "Lexical Categories in Japanese," *Lingua* 73, 29-51.
- O'Grady, W. 1991. *Categories and Case: The Sentence Structure of Korea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Rosen, S. 1989. *Argument Structure and Complex Predicates*,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Sells, P. 1995. "The Category and Case Marking Properties of Verbal Noun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
- Smith, H. 1992. *Restrictiveness in Case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ornia.
- Urushibara, S. 1991. "ey/eykye: A Postposition or a Case Marker?,"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ol. 5*, 421-431. Harvard University.
- van Riemsdijk, H. 1983. "The case of German adjectives," in F. Heny and B. Richards, eds., *Linguistic categories: Auxiliaries and Related Puzzles*,

202 이 중 근

vol. 1, Reidel, Dordrecht.

Wechsler, S. 1991. *Argument Structure and Linking*,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ornia.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 jklee@chungkye.mokpo.ac.kr

전화: +82-61-450-2124